

한화戰도 '스윙'...6연승 '무한질주'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13일 한화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1회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터뜨린 후 3루 베이스를 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도영, 선두타자 초구홈런·김호령 '썰기포' 5대2 정해영 '8세이브'...2위 NC와 1.5게임차 고공행진



KIA 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를 꺾고, 파죽의 6연승을 거두며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KIA는 14일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솔(SOL)뱅크 KBO리그 한화와의 원정 3차전에서 선발투수 네일의 호투와 김도영의 멀티히트에 힘입어 5-2로 승리했다. 14승 4패(승률 0.778)를 기록한 KIA는 이날 패한 NC와 한게임 반차로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아울러 주중 LG 3연전에 이은 2연승 스윙 시리즈를 올렸다.

선발투수 네일은 52이닝 동안 7피안타 1볼넷 7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수를 챙기지는 못했다.

볼펜도 완벽 투구를 선보이며, 팀 승리를 떠받쳤다.

KIA가 7회 결승점을 뚫으며 이준영이 승리 투수가 됐다. 최지민과 전상현이 1홈드를 추가했고, 마무리 정해영은 시즌 8세이브를 따내며, 이 부문 1위를 달렸다.

타선에서는 총 7안타가 나온 가운데, 김도영이 5타수 2안타 1타점(홈런)의 맹타를 휘둘렀고, 소크라테스도 1타점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우성이 1타점을 쳤고, 김호령은 9회 감쪽 솔로

홈런을 쏘아올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KIA가 1회 선제점을 올렸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한화 선발 산체스의 초구를 그대로 통타, 왼쪽 담장을 넘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김도영의 시즌 4호 홈런이다. 이어 이창진과 이우성의 연속 볼넷으로 만든 무사 1,2루에서 상대 투수의 악송구로 2-0으로 앞서갔다.

4회 한화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안타와 도루를 내준 2사 2루 상황에서 1타점 적시타를 맞고, 스코어 2-1이 됐다. 지난달 27일 롯데전 1실점 이후 17이닝만의 네일의 자책점이었다.

6회에도 한점을 내주며 동점이 됐다. 위기를 넘긴 KIA가 7회 다시 2점을 달아냈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창진이 볼넷을 얻은 후 이우성이 중앙 담장을 맞는 2루타를 쳐내 대주자 김호령을 홈에 불러들였다.

이어 최형우의 볼넷과 소크라테스의 1타점 적시타를 추가해 스코어를 4-2로 만들었다.

KIA는 9회에 한점을 더 따내며 승부에 썰기를 박았다. 선두 타자 김호령이 주현상으로부터 좌측 담장을 넘는 솔로포로 스코어를 5-2로 벌리며 한화의 추격지를 꺾었다. /주홍철기자

"광주오픈에서 존재감 각인"

'5번 시드' 부윤차오케테 "8강 그 이상 목표 최선"

지난해 서울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광주오픈에서 8강 진출로 존재감을 알렸던 부 윤차오케테(중국·Bu Yunchaokete)가 올해 5번 시드를 받고 빛고를 무대를 뒀다.

윤차오케테는 14일 광주 진월국제 테니스장에서 ATP(프로테니스협회) 광주 오픈 챌린저 2024 참가를 앞두고 사전 훈련을 가졌다.

5번 시드를 받고 32강에 직행한 그는 15일 알렉산더 블락스(벨기에·Alexander Blockx)와 맞대결을 치른다.

윤차오케테는 1년 사이 ATP 단식 랭킹을 242위에서 181위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서울오픈과 부산오픈에는 참가 자격이 있었지만 광주오픈은 대체 선수(ALT)로 뛰었던 그는 올해 당당히 시드권에 입성했다.

그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며 "모든 대회를 하루하루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대회 역시 매 경기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광주오픈에서 8강 진출로 좋은 기억을 안고 갔던 만큼 올해 대회에서도 호성적을 노릴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결과보다 과정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차오케테는 "지난해와 다른 선수들과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플레이도 다를 것"이라며 "결과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기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지난해 열린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 대회에서 부윤차오케테 경기 모습. <광주테니스협회 제공>

만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식에만 출전하는 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주 부산오픈은 32강에서 예선을 거친 리오 노구치(일본·Rio Noguchi)에게 0-2(5-7, 5-7)로 패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윤차오케테는 "단식에만 출전하기 때문에 지면 곧바로 집에 가야 한다"며 "부산오픈에서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좋았다. 탈락 이후 충분히 컨디션을 조절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뼈아픈 극장골 '충격의 5연패'

광주FC, 전주 원정 징크스 못깨고 1대2 패배

광주FC가 충격의 5연패에 빠졌다. 광주는 지난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7라운드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뼈아픈 극장골을 내주며 1대2로 패했다.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전주 원정 징크스도 깨지 못했다.

1라운드 서울전(2대0), 2라운드 강원전(4대2) 승리로 돌풍을 예고했던 광주는 이후 포항(0대1), 대구FC(1대2), 인천 유나이티드(3대3), 김천 상무(1대2), 전북 현대(1대2)에 내리 패하는 부진에 빠졌다.

승리에 목마른 양 팀의 대결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불꽃이 튀었다.

팽팽하던 접전이 이어지던 전반 17분 광주가 선제골을 내줬다.

전북의 프리킥 상황에서 골키퍼 이준이 처낸 공이 멀리가지 못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다. 이어 프리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이 이재익의 발끝에 걸리면서 골문으로 허무하게 빨려 들어갔다.

볼 점유율은 광주가 앞섰으나 제대로 된 슈팅없이 0대1로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후반전, 광주는 문민서 대신 정지용을, 조성권 대신 노련한 박한빈을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공을 돌리다가 패스가 끊기면서 주도권을 전북에 넘겨줬다. 주 공격수 가브리엘은 전북의 이중 삼중 수비벽에 번번이 막혔다.

광주가 후반 16분 이희균과 빅토를 빼고 이건희와 최경록을 투입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후반 27분, 원투패스를 주고받으며 기회를 잡은 최경록이 강하게 찬 오른쪽 슛이 골대를 맞고 나왔다.

파상공세는 계속됐다. 후반 33분 전북 수비의 패스 미스를 가로챈 이민기가 강력한 슈팅을 날렸지만, 뜨고 말았다. 경기 주도권은 계속 광주가 쥐고 있었다. 골이여, 박한빈이 반칙으로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원발의 마법사 이은뎀이 투입됐다. 이은뎀이 가까운



광주FC이건희가 지난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후반 동점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골대로 공을 강하게 붙였으나 골키퍼가 편적으로 쳐냈다.

광주가 절실히 기다리던 동점골 기회가 찾아왔다. 후반 38분 정호연이 왼발로 감아 찬 크로스가 골문으로 향했다. 전북 골키퍼가 가까스로 쳐냈지만, 이건희가 강하게 차 넣으며 1대1 동점을 만들었다.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광주에 넘어오는 듯했다.

하지만, 아쉬운 실수가 광주 발목을 잡았다.

후반 추가 시간, 골키퍼 이준이 빌드업하던 과정에서 패스 실수를 저질렀

다. 빼앗긴 공은 송민규에게 향했고, 공을 잡은 송민규는 빈 골문을 향해 가볍게 차 넣었다. 허무하게 역전 골을 내주는 순간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 9분, 광주에게 절호의 동점골 기회가 찾아왔다. 가브리엘이 상대 왼쪽 공간을 돌파한 다음 골에어리어 지역으로 내준 공을 이건희가 컷백하며 발을 갖다 댔지만, 전북 골키퍼 정민기가 다리로는 막아냈고, 흘러나온 볼이 달려들던 정호연의 발끝에 닿았지만 텅 빈 골대를 외면하고 골포스트를 스쳐 나가며 광주의 패배가 확정됐다. /박희중기자

시페퍼스, 팀 재건 본격 시동

리베로 한다혜 FA 영입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장소연 감독 체제로의 팀 재건에 시동을 걸었다.

AI페퍼스는 지난 12일 자유계약선수(FA) 리베로 한다혜와 계약기간은 3년, 연봉과 옵션을 포함한 총액 8억7천만원에 계약했다.

한다혜는 2013-2014 시즌 GS칼텍스에 입단해 11시즌 간 리그 경력과 국가대표 경력 등을 보유한 베테랑 리베로다.

입단 후 꾸준한 실력 향상으로 매 시즌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코트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었으며 지난 시즌 리치브와 수비 기록은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AI 페퍼스와 계약을 맺은 한다혜는 "프로 입단 후 첫 이적이다. AI 페퍼스에서 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며,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배구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FA 계약 체결 리베로 한다혜

장소연 AI 페퍼스 감독은 "한 선수 영입은 수비력을 보강해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며 "베테랑 선수의 풍부한 경험이 코트 내안정감을 불어넣어 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I 페퍼스는 한다혜의 FA 영입과 더불어 아시아쿼터 선발,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등을 통해 최적의 팀 구성에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박희중기자

'69홀 노보기' 박지영, 메디힐·한국일보 제패

박지영(28)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에서 우승했다.

박지영은 14일 인천 클럽72 하늘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22언더파 286타를 기록한 박지영은 2위 정윤지를 6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72홀 286타(22언더파)는 KLPGA 투어 역대 2번째로 적은 타수다. 이 부문 최소 기록은 285타(23언더파)다.

박지영은 올 시즌 네 번째 대회에서 마수절이 우승을 챙기고 통산 8승을

쌓았다. 박지영은 올해 3회째를 맞는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기도 하다. 같은 대회 트로피를 2년 만에 또 수신했다.

박지영은 KLPGA 투어 사상 첫 '72홀 노 보기' 우승을 노렸으나 어렵게 놓쳤다. 노 보기 우승 자체는 투어 사상 총 9차례 있었지만 모두 2라운드 혹은 3라운드로 치러진 대회였다.

박지영은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잡았고 2, 3라운드에서는 차례로 버디 6개씩 낚았다. 그리고 이날 4라운드 15번 홀까지 '노 보기 행진'을 벌이다가 16번 홀에서 처음 보기를 적어냈다. /연합뉴스



마스터스 3라운드에서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아쉬워 하는 우즈 /AFP=연합뉴스

우즈, '82타'...메이저대회 최악의 스코어

마스터스 3R 공동 52위

마스터스 골프대회 2회 연속 컷 통과라는 기록을 썼던 타이거 우즈가 메이저 대회 최악의 스코어를 적어내며 무너졌다.

우즈는 14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마스터스 토너먼트 3라운드에서 무려 10오버파 82타라는 '빅 넘버'를 스코어 카드에 기록했다.

타샷, 아이언샷, 퍼트 모두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한 우즈는 더블보기 2개, 보기 8개를 쏟아냈고, 버디는 단 2개에 그쳤다.

중간 합계 11오버파 227타를 친 우즈는 공동 52위로 떨어졌다.

우즈가 프로 데뷔 이후 18홀에서 80타를 친 것은 모두 5차례였는데, 그중 3차례가 메이저 대회에서였다. 2002년 브리티시 오픈 3라운드 때 81타, 2015년 US오픈 1라운드 때 80타를 친 이

후 이번 마스터스가 세 번째다.

마스터스만 보면 2022년 대회 3, 4라운드 연속 78타를 친 적이 있고,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2015년 메모리얼 토너먼트 3라운드에서 85타를 쳤다.

우즈는 3라운드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내 팀들과 함께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하겠다"며 부진한 성적에도 이번 대회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연합뉴스